



# The Nursing Times

**Sol-Times 7th Edition**  
회장 우주희 [dmb01100@naver.com](mailto:dmb01100@naver.com)  
기사부장 이유나 [lyn9328@gmail.com](mailto:lyn9328@gmail.com)  
사진부장 최수지 [suzv729@naver.com](mailto:suzv729@naver.com)  
발행부장 주선미 [tjsal2130@hanmail.net](mailto:tjsal2130@hanmail.net)  
총무 손건우 [gun9236@naver.com](mailto:gun9236@naver.com)

VOL.07 (04.01~04.30)

Published on 06.13.2016 Copyright © Sol-Times

## 아주대학교병원 취업설명회



4월 28일, 우송타워 6층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취업설명회가 진행되었다.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본부의 비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신입 간호사 선발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은호 간호행정교육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선택에 도움이 되고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우수한 간호 인력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우주희 기자/우주희 사진

## 새로이 바뀐 우송지수, 함께 알아보기



4월 27일 수요일 4시 도서관 지하강당에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우송지수 특강이 있었다. 2016년을 맞아 새로이 바뀐 우송지수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 공지를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특강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 새내기 학교생활

1학년 윤성화 학생 인터뷰



### Q.학과생활은 어떤가요?

A.사실 처음엔 적응도 어렵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도 외로웠는데 학과 공부도 하고 좋은 선배들과 이야기 하며 친목도 다지고 교수님들과 면담을 하면서 점점 학교에 적응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단체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 Q.다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우선, 간호학과 공부가 힘들겠지만 돌아보면 분명 남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학번 동기들이 지치지 않고, 지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여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살면서 아쉬움의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인생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6봄밤을 달구었던 새내기 콘서트



2016년 4월 5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우송대학교 16학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송대학교 총학생회 주최 봄 콘서트가 열렸다.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형식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간호학과 신입생 엄정은 학생의 평가에 따르면, "새내기만이 갈 수 있는 콘테스트를 갈 수 있게 되어 매우 좋았고, 간호학과 학생들이 아쉽게도 예선에서 탈락해 끼를 발산할 기회를 놓쳐서 아쉬웠지만 학과 별로 노래와 춤을 추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매우 즐거웠다."고 전했다. 다른 과 학생들과 소통하고 간호학과 친구들과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수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호은 기자

## 학교에서 배운 인성으로, 환자에게는 친절을



수원 성 빈센트 병원은 4월의 친절직원에 우송대학교 09학번 졸업생 최소영 간호사(61병동) 외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소영 간호사는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소영 간호사를 추천한 환자들은, "수술 전부터 수술에 관한 궁금한 점을 상담해 주는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지 못한 부분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며, 수술 후에도 수시로 입원실을 오가며 정성껏 환부를 살펴주었다."고 추천이유를 밝혔다. 조계순 오달리아 병원장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친절함 미소를 잃지 않는 의료진의 노력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친절직원 선정자들을 치하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손건우 기자

